口訣學會 20年의 回顧와 展望

南豊鉉*

要約

口訣學會는 1988년 2월에 口訣, 吏讀, 鄕札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口訣研究會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였다. 처음에 共同研究會를 年 2回씩 열기로 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字吐釋讀口訣 資料, 順讀口訣資料, 삼국시대부터 15, 16세기에 걸치는 吏讀資料들을 발굴하였다. 1992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講讀會를 열어 口訣과 이두자료를 읽어 왔고 최근에는 鄕歌의 해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1996年 학회의 명칭을 '口訣學會'로 고치고 學會誌『口訣研究』를 창간하였다. 이어 9月에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를 주제로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여 한국의 文字文化가 國際化되는 길을 열었다. 이 이후 韓國과 日本을 왕래하면서 2007년까지 이 계통의 학술회의가 10회 개최되었다. 이밖에 회원의 개별적인 국제회의 발표도 있었고 韓日間의 共同 프로젝트도 수행되었으며 美國의 아시아學會에서도 口訣과 訓点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000년 여름에 서울에서 角筆点吐釋讀口訣이 발견되어 口訣學會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釋讀口訣研究의 國際化가 촉진되었고 角筆과 点吐라는 古代文字文化의 새로운 면들이 부각되었다. 点吐釋讀口訣에 대한 研究와 解讀 結果가 單行本으로 간행되었

* 檀國大學校 名譽敎授

고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 나와 이 방면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持續되어 國語史 특히 古代國語가 체계적으로 기술되고 그 시대적인 변천상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의 고대문자문화의 양상이 밝혀져 우리 文字文化의 世界化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口訣硏究會, 資料發掘, 資料講讀, 國語史의 體系的 記述, 口訣硏究의 國際化

1. 口訣硏究會의 發足과 그 活動

1988年 2月 9日과 10日 第1回 口訣硏究會를 수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학회도 창립되었으니 於焉 20年이 흘렀다. 學會의 創立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활동에 참여했던 나로서는 여러 가지 回想과 아울러 깊은 感懷를 가지고 있어 여기 기록으로 남긴다.

먼저 第1回 口訣硏究會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口訣硏究會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故 崔範勳 교수와 처음으로 얘기가 되었다. 1987년 9월 10일부터 2泊3日간 仁荷大學校 韓國學硏究所에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내가 '口訣硏究의 回顧와 展望'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崔範勳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었다. 그 때 토론 시간이 부족하여 앞으로 서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는 약속이 되었다. 그 후 약 1개월쯤 뒤에 口訣硏究에 새로이 관심을 가져온 李丞宰 교수와 상의하여 硏究會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江南의 팔레스호텔에서 갖게 되었다. 참가자는 崔範勳, 金相大, 李丞宰, 南豊鉉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자리에서 硏究會는 1년에 여름과 겨울 2회 갖기로 하고 모임의 명칭을 口訣硏究會

로 定하였다. 借字表記資料 全般을 硏究對象으로 하였지만 借字表記의 母胎는 口訣이었으므로 이를 硏究會의 名稱으로 사용하자는 필자의 提案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당시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연구가 學界의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도 이 명칭의 제정을 뒷받침하였다. 會員은 차자표기와 국어사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網羅하도록 하였고 대표는 沈在箕 교수, 幹事는 李丞宰 교수가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모였던 첫 發表會는 2월 9일 오후에 시작하여 이튿날 오전까지 23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3차 연구회까지의 發表內容은 口訣, 吏讀, 鄕歌, 釋義, 地名과 日本의 借字表記資料에 대한 것들이었다. 3차 연구회부터는 資料 講讀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1년에 1번은 서울에서, 그 다음은 지방에서 모이기로 하였는데 지방의 연구회가 끝나면 그 지방의 借字表記 資料를 찾아보는 답사를 하기로 하였다. 지방에서 개최한 곳은 海印寺를 비롯하여 慶北大學校, 釜山大學校, 尙志大學校, 忠南大學校, 關東大學校, 全南大學校, 全州大學校, 西原大學校, 淸州古印刷博物館, 啓明大學校 등이었다.

硏究會에서는 資料發掘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당시 12세기 중엽의 자료로 추정된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문법은 15세기 국어의 문법과는 맥락을 짓기가 어려울 만큼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15세기 국어와 이 釋讀口訣의 言語를 이어 주는 자료의 발굴을 매우 중요한 과제이었다. 高麗版 南明集, 佛說四十二章經, 國立圖書館本등 高麗本 梵網經 3種, 素谷本등 6種의 楞嚴經, 一簑文庫本 圓覺略疏注經, 誠庵古書博物館本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2種, 直旨心體要節, 祇林寺本 法華經 등 한글 創制 이전의 順讀口訣이 20종 이상이 속속 발굴되어 소개되었다. 이 자료들은 한글 創制 이후의 자료들만 대상으로 연구하던 國語學의 眼目을 크게 넓혀 준 것이었다.

그러나 漢文에 口訣字로 기입된 이 자료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口訣硏究의 普及을 위하

여 학회에서는 月1回 講讀會를 갖기로 하였다. 1991년 4월 13일(토)부터 宋成文本 楞嚴經(1402년판)의 順讀口訣을 시작으로 祇林寺本 楞嚴經 順讀口訣 講讀을 1994년 4월까지 3년간 지속하였고 그 이후에는 새로 발굴된 釋讀口訣들을 講讀하였다. 이 자료 가운데 素谷本(舊朴東燮本) 楞嚴經을 비롯하여 南權熙本, 祇林寺本, 宋成文本 楞嚴經을 口訣資料集 一, 二, 三으로 影印·刊行하였다. 이는 硏究者들이 口訣硏究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同一資料를 共有함으로써 共同討論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2년부터 새로운 釋讀口訣資料가 발굴되었다. 瑜伽師地論卷20을 비롯하여 華嚴經卷14, 合部金光明經卷3, 華嚴經疏卷35 등이 잇달아 발굴되어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書誌學者 南權熙 교수의 공이 컸다. 이들이 발굴됨으로써 舊譯仁王經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釋讀口訣의 解讀과 그 文法을 體系的으로 연구하여 기술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華嚴經卷14와 舊譯仁王經의 釋讀口訣은 學會誌 『口訣硏究』에 影印하였고 瑜伽師地論卷20은 單行本으로, 華嚴經疏卷35는 南權熙 교수의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에 影印하였다. 合部金光明經卷3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디지털화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연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회에서는 '釋讀口訣의 표기법과 그 한글轉寫'를 特輯으로 한 『口訣硏究』 3輯을 간행하였다. 이는 이 방면에 새로이 관심을 갖는 硏究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에 口訣字의 코드體系를 마련하여 電算化한 것도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는 1992년 나와 李建植 교수가 여러 사람의 글에서 구결자 244자를 수집하여 口訣硏究會의 검토를 거쳐 그 자형을 폰트하여 '훈글 2.0'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活字化가 가능해진 것이다.[2] 후에 마이

2) 이 경위에 대하여는 李建植(1996), 컴퓨터 입출력을 위한 口訣字의 코드체계에 대한 試論, 『口訣硏究』 1輯을 참조할 것.

크로소프트社의 'Word'에서도 口訣字表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구결자의 사용이 世界化되었다. 이로써 口訣資料의 電算化는 물론 색인을 만들기가 쉽게 되었고 논문들의 출판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뒤에 朴鎭浩 교수의 편리한 색인 프로그램인 Unicorn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口訣硏究에 入門하는 사람들이 口訣資料를 직접 筆寫하여 익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弊端이 생긴 것은 이 방면의 硏究者들이 극복해야 할 일이다.

2. 口訣學會로의 變身과 口訣硏究의 國際化

1996년 9월 5일과 6일에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를 主題로 한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함으로써 口訣硏究會는 國內 硏究會의 범위를 넘어 國際的인 學會로 跳躍하게 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모임의 명칭을 '口訣學會'로 바꾸게 되었다.

이에 앞서 나는 1986년 8월 日本 北海道大學의 石塚晴通 교수와 獨逸의 함부르그에서 개최된 제32회 아시아·북아프리카 學者大會에서 Devices for reading Chinese texts among the neighbouring peoples이란 panel을 만들어 일본의 訓讀과 韓國의 口訣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다. 그 후 後續되는 國際會議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하다가 이때에 와서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를 成事시키기까지에는 日本에서 石塚 교수와 梅田博之 교수, 國內에서는 李基文 교수의 도움이 컸다. 이 국제회의를 위한 準備委員會는 顧問 李基文, 위원장 南豊鉉, 위원 南星祐(당시 학회장), 宋基中, 李丞宰, 鄭在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기서 招請 對象과 範圍, 大會運營 등 諸般事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大會場所는 檀國大學校 蘭坡紀念音樂館이었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a) 국내 발표자
李基文(東北아시아 文字史)
宋基中(突厥文字)
沈在箕(釋讀口訣의 讀法)
白斗鉉(口訣文字體系)
金浩東(內陸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b) 國外 발표자
築島 裕(日本 訓讀硏究史)
石塚晴通(아시아人의 漢文訓讀)
西田龍雄(西夏文字)
徐琳(白族文字)
淸格爾泰(契丹文字)
戴慶廈(漢字式의 文字들)
Bùi Duy Tân(咱南文字)
S. R. Ramsey(中國少數民族의 文字)
Hiu Lie(女眞文字)
A. Buzo(三國志와 古代韓國語表記)

韓國, 日本, 中國, 越南, 美國, 獨逸, 濠洲의 7個國 學者들이 참가하여 中國의 漢字와 周邊 民族들의 文字 硏究에 대하여 紹介하고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각 방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참석하였으니 당시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크고 보람 있는 대회였다.

이에 후속되는 국제학술회의는 다음과 같다.

1) 日時: 2001年 8月 19~20日
主催: 北海道大學 文學硏究科

大會名(主題): 國際ワークショップ [漢文古版本とその受容(訓讀)]
參席者(發表者): 日本 11名(4名 발표), 口訣學會 16名(7名 발표), 핀란드 1名, 中國 1名.

2) 日時: 2001年 12月 7~8日
主題: 漢文의 受容과 讀法-韓國의 口訣과 日本의 訓点
主催: 口訣學會·서울市立大學校 國文科
大會名: 第二回 國際學術大會 [東아시아의 漢文 讀法-韓國의 口訣과 日本의 訓讀]
發表者: 口訣學會 6名, 日本 4名, 中國 1名.

3) 日時: 2003年 7月 24~25日
主催: 日韓漢字·漢文受容研究會 (財)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後援: 富山大學人文學部
大會名: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
發表者: 口訣學會 10名, 日本 4名.

4) 日時: 2004年 9月 1~4日
主催: 北海道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主題: 日本學・敦煌學・漢文訓讀の新展開
發表者: 日本 13名, 口訣學會 9名, 中國 10名, 臺灣 4名.

5) 日時: 2005年 9月 1~2日
主催: 口訣學會·서울市立大學校 國文科
主題: 漢文讀法과 아시아의 文字
發表者: 口訣學會 11名, 日本 9名, 中國 2名, 臺灣 1名, 캐나다 1名.

6) 日時: 2006年 8月 21~22日
主催: 北海道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大會名(主題): 國際ワークショップ「典籍交流(訓讀)と漢字情報」
發表者: 日本 12名, 韓國 3名, 中國 1名, 越南 1名, 英國 1名.

7) 日時: 2006年 11月 13日
主催: 廣島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廣島大學圖書館
大會名(主題): STYLUS(尖筆・角筆)文獻のみちびく世界——研究

の現狀と課題
發表者: 日本 1名, 韓國 1名, 스위스 1名.

8) 日時: 2007年 3月 22~25日
主催: 아시아學會(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Session 138 Chaired by J. Whitman(Cornel University).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 후 컬럼비아大 大學院, 코넬大 大學院 特講.
主題: Hanmun~kugyol=Kambun~kunten: Pointing, Reading, and Appropriation of Language in Korea and Japan, 9th-14th.
發表者: 韓國 南豊鉉, 日本 小林芳規.
討論: 캐나다 Ross King, 韓國 鄭在永.

9) 日時: 2007年 7月 3~4日
主催: 口訣學會, 서울大學校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主題: 古代 韓日의 言語와 文字
發表者: 口訣學會 10名, 日本 5名.

이와 같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0回의 國際學術會議에서 口訣과 借字表記資料가 다루어졌으니 이 방면의 연구가 얼마나 크게 國際的인 注目을 받아 왔는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韓日間의 共同硏究 프로젝트도 있었다.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訓点資料 硏究' 課題를 韓國에서는 鄭在永 外 4人, 日本에서는 小林芳規, 西村浩子가 참여하여 2001년부터 1년간 진행하여 2003년에 그 연구업적을 단행본 『韓國角筆口訣資料와 日本訓点資料 연구』로 간행하였다. 그 연구과정에서 일본의 高知縣 安田町의 神社에 수장된 日本 奈良時代의 寫經에 기입된 방대한 양의 平安時代의 訓点을 열람·조사하고 奈良市의 東大寺圖書館에 소장된 韓日의 古本의 角筆資料들을 閱覽하였다. 한국에서는 誠庵古書博物館, 湖林博物館 등에서 角筆 釋讀口訣 자료를 조사하였다. 2003년부터 李丞宰 외 5, 6인의 硏究者들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의 硏究課題를 수행하는 중에 小林芳規 先生

의 도움을 얻어 日本 京都의 石山寺의 奈良時代 寫經과 京都博物館의 古經들을 5年間 閱覽·調査하여 硏究成果를 올리었다. 또 日本의 富山大學의 小助川貞次 교수의 프로젝트 '國際的視點から見た日本語·朝鮮語における漢文訓讀に關する實證的硏究'의 支援으로 口訣學會의 젊은 학자들 12명이 2005年부터 2006年까지 3차에 걸쳐 東京國立博物館, 京都國立博物館, 東洋文庫, 大東急記念文庫에서 日本의 訓点資料의 原本과 典籍들을 閱覽·調査하였다.

이밖에 口訣과 吏讀 등에 대한 연구내용을 日本에서 개별적으로 초대를 받아 발표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朝鮮學會

2001年 10月 6日 南豊鉉 發表.

2004年 10月 3日 李丞宰 發表.

靑山學院大學 日本文學科(主題; 文字とことば---古代アジアの文化交流),

2005年 3月 12日 南豊鉉 發表.

日本 東方學會 50回 國際심포지움.

2005年 5月 20日 南豊鉉 發表.

2006年 5月 朴盛鍾 發表.

二松學舍大學主催 國際심포지움(主題; 日本漢文の黎明と發展)

2007年 9月 8日 南豊鉉 發表.

以上은 口訣學會가 漢文讀法과 文字文化의 發展에 대한 國際的인 理解를 위하여 매우 많은 활동을 해 왔고 口訣學會 會員들이 漢字文化圈의 相互理解를 위하여 얼마나 活潑한 활동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日本의 石塚晴通 교수, 小林芳規 교수, 藤本幸夫 교수와 美國의 J. Whitman 교수, 캐나다의 Ross King 교수의 도움이 컸다.

1995年 5月 1日 '口訣硏究會'를 '口訣學會'로 名稱을 바꾸면서 1996年

2月 1日 學會誌『口訣硏究』를 창간하게 되었다. 그 創刊辭에서 나는

> …… 한편 구결은 차자표기의 모태가 된다. 口訣과 鄕札 그리고 吏讀는 각기 개별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대를 가지고 발달한 것이다. …… 口訣資料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산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東洋諸民族의 文化的인 活動과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
> …… 이제 口訣硏究會는 그 이름을 口訣學會로 바꾸고 새로운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방면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회원들의 열의가 모아져 학술지『口訣硏究』를 창간하게 된 것이다. …… 이『口訣硏究』의 창간으로 구결연구의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고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 創刊을 계기로 口訣, 吏讀, 鄕札의 연구가 활성화될 것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學會誌『口訣硏究』는 每年 2回 간행하여 2008年 2月 현재 第20輯을 간행하였다. 口訣과 吏讀를 비롯한 借字表記 資料의 發掘, 그 解讀, 文字論的 發達과 特性, 音韻, 文法, 語彙 등 古代와 中世國語의 言語的 내지는 文化的 特性을 提題로 한 논문이 每號 10篇 內外가 실렸다. 近年에 와서는 日本의 訓点과 口訣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논문, 漢字의 文字論的인 面에 관한 논문, 中國語와 日本語의 硏究에서 古典이라고 할 만한 논문들의 飜譯 등 口訣學會가 國際的으로 활동하면서 관심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다양한 論文들이 발표되고 있다. 發表者들도 韓國人은 물론, 日本, 中國, 臺灣, 美洲의 학자들이었다. 2001年 12月에는 韓國學術振興財團의 學術誌 登載候補가 되었고 2004年 12月에는 同 登載誌가 되어 이 方面 硏究者들의 士氣가 높아지고 있다.

3. 角筆点吐口訣의 發見과 口訣學會의 跳躍

2000年 7月初 韓國의 角筆資料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1世紀 前半期의 点吐釋讀口訣이 發見된 것은 口訣學會의 硏究位相을 한층 跳躍하게 하는 契機가 되었다.

그 發掘經緯를 간단히 짚어보기로 한다.

2000年 5月頃에 평소에 尊敬하던 日本의 廣島大學의 小林芳規 교수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韓國에도 角筆資料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니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小林 先生이 日本에서 角筆資料를 발굴하여 큰 硏究業績을 거두었음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평소에 한국의 韓紙는 日本의 和紙에 비하여 얇아서 角筆의 記入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小林 선생의 부탁이 간곡하여 힘이 자라는 데까지 도와 드리기로 하였다. 7월 3일(月曜日) 檀國大 東洋學硏究所의 書庫부터 시작하여 4일은 東國大學 圖書館, 5일은 高麗大學圖書館, 6일은 誠庵古書博物館, 7일은 延世大 圖書館을 조사하고 8일(토요일)은 市內觀光을 하는 것으로 日程을 잡았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誠庵古書博物館에 高麗本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 高麗本의 韓紙는 두꺼우므로 여기에서 각필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誠庵 선생님에게는 특별히 高麗本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다. 7월 2일 小林 선생님 내외분과 西村浩子 助敎授가 來韓하여 3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처음 단국대학, 동국대학, 고려대학 도서관에서 각필자료가 발견되어 확인하였으나 주로 근대의 자료인데다가 국어학의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었다. 6일 誠庵古書博物館을 방문하였을 때 3 보따리의 高麗時代의 貴重本들을 出庫하여 주시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였었다. 小林 선생이 角筆資料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照明器具인 角筆스코프를 비추면서 고려시대의

卷子本들을 조사하던 중 西村浩子 선생이 많은 角筆 記入이 들어 있는 初雕大藏經의 瑜伽師地論卷8을 펼쳐 보였을 때 방 안의 분위기가 俄然 긴장됨을 느낄 수 있었다. 漢文 文脈에 따라 点과 線으로 기입하여 나간 角筆의 자취를 대했을 때 그것이 日本의 訓点인 오코토点과 같은 点吐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조사하여 본 결과 이 点吐는 全卷에 걸쳐 기입되었고 釋讀口訣을 매우 체계적으로 기입한 것이어서 點圖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얼마 전 구결학회 共同硏究會에서 南權熙 선생이 祇林寺藏 高麗時代의 法華經에서 口訣字가 아닌 点과 線을 먹으로 표시한 구결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日本의 訓点과 같은 계통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을 때만 하여도 그것이 14세기 말의 順讀口訣이었으므로 이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만큼 주목하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다가 그보다 앞선 11世紀 前半期의 初雕大藏經에서 全卷에 기입된 角筆口訣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음날 延世大學校 圖書館에서 角筆資料 調査를 마치고 角筆에 대한 小林 선생의 특강이 있었다. 그 다음 날(토요일)은 市內 觀光으로 예정하였던 日程을 바꾸어 誠庵古書博物館에서 자료조사를 계속하였다. 小林 선생의 자료조사는 준비가 철저하고 조사방법이 효과적이어서 調査紀錄이 곧 原稿가 될 만큼 철저하였다. 婦人 小林節子 여사의 同行은 처음에는 觀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였었는데 小林 선생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어서 共同調査員으로서의 一翼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口訣學會의 우리 몇 사람이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小林 선생을 찾아 日本의 廣島市에 갔을 때 부인께서 친절하게 접대해 주시던 일은 기억에 새롭거니와 불행히 癌으로 1년여를 투병하시다가 他界하셨으니 마음 아픈 일이다. 哀悼의 뜻을 表한다.

小林 선생이 귀국하면서 角筆스코프를 口訣學會에 기증하여 주어 誠庵古書博物館에서의 角筆資料調査와 点吐의 移点作業을 계속할 수 있었다. 李丞宰, 尹幸舜과 필자 그리고 후에 金永旭, 鄭在永 선생이 합류

하여 每週 2回씩 조사를 하였는데, 이 조사의 사이사이에 誠庵 선생이 角筆스코프를 이용하여 손수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주시었다. 그리하여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卷5와 11세기 말 내지 12세기 초의 角筆点吐釋讀口訣 資料인 華嚴經卷22, 卷36, 卷57, 卷6을 차례로 발굴하였고 마지막으로 10세기경의 자료인 晉本華嚴經卷20을 발굴하였다.

그 후 鄭在永 선생의 주선으로 湖林博物館의 初雕大藏經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도 瑜伽師地論卷3, 華嚴經卷31, 卷34의 角筆釋讀口訣을 발굴하였다. 이들은 誠庵古書博物館의 구결자료와 같은 腹藏에서 나온 것이 흩어진 것이다. 그 후 延世大 圖書館에서 11세기경의 판본인 法華經卷1에서도 全卷에 기입된 角筆点吐釋讀口訣이 발견되었다.[3] 이 이후 鄭在永 교수가 日本의 南禪寺藏本의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卷8에서 같은 종류의 角筆釋讀口訣 資料를 발굴하였다. 上代의 口訣資料의 發掘을 苦待하던 학계에 10種이 넘는 자료가 한꺼번에 발굴된 것은 慶事 중의 慶事라고 할 일이거니와 이를 契機로 口訣學會의 位相과 硏究는 급격한 신장을 하게 되었다.

이 자료들은 앞의 4인과 나중에 李田京, 張景俊, 朴鎭浩 교수가 합류하여 약 2년에 걸쳐 移点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 2000년 11月 初에 小林 선생이 廣島에서 寫眞專門家를 帶同하고 와 誠庵古書博物館의 각필자료를 촬영하였다. 그 후 2003년경 내가 주관하여 晉本華嚴經卷20을 촬영하였고 湖林博物館의 자료는 2006년에 모두 촬영할 수 있었다. 이 사진을 張景俊 교수가 컴퓨터에 入力하여 CD로 만들어 구결학회 홈페이지에 올려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는데 그것을 스크린에 비추어 여러 사람이 함께 보면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角筆点吐釋讀口訣의 발굴은 11세기 이전의 많은 國語史 資料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3) 이 발굴 자료와 그 발굴과정에 대하여서는 '小林芳規著(2004), 『角筆文獻硏究導論』 上卷'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밖에도 까맣게 妄覺되었던 우리의 옛 文字文化에 새로운 조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日本 訓点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던 오코토点(点吐)이 한국에서도 발견됨으로써 韓日間의 漢文釋讀法에서 나타나는 間隙을 메워 준다는 점, 東아시아의 文字文化의 傳播經路를 새로이 理解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 등 그 가치는 매우 다양하고 크다. 그리하여 이 이후의 學會硏究는 이 点吐釋讀口訣에 많은 比重이 두어졌다.

이 点吐釋讀口訣에 대한 硏究는 移点 過程에서 讀法과 表音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共同硏究는 小林 선생을 포함하여 移点을 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國際的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는데 小林 선생은 日本의 漢文訓讀이 新羅에서 전파된 것임을 구명하는 작업에서 성과를 올리었다. 이로써 앞으로도 兩國의 漢文讀法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실증적인 자료가 좀더 발굴되어 연구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2001년 이후 口訣學會 會員들이 일본을 비롯한 국제적인 연구에 많이 參與하게 된 것도 이 자료의 발굴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편 젊은 연구자들이 이의 解讀을 위한 모임을 가져 오다가 2002년 12월부터는 李丞宰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學術振興財團의 支援을 받아 2007년 여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해독작업은 2004년부터 瑞草洞의 陽地原빌딩 세미나室에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연구자가 매주 1번씩 모여 현재까지 진행하여 오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그 연구 결과물을 單行本으로 엮어내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瑜伽師地論 卷5, 卷8)』, 『同 解讀과 飜譯 2(周本華嚴經卷36)』, 『同 解讀과 飜譯 3(卷6, 卷57)』을 간행하고 그 寫眞影印本 2권도 따로 간행하였다. 현재 湖林博物館藏本 周本華嚴經卷31과 卷34는 그 解讀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

學會創立 때부터 매년 2회 시행하던 共同硏究會는 2003년 8월부터 명칭을 '全國學術大會'로 바꾸어 2007년 8월까지 第35回 大會를 가졌다. 제32회 대회(2006년 2월)부터 3회는 國語史學會와 공동으로 개최하

였다. 月例講讀會는 평균 年 8會를 개최하여 1회에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1999년 10월부터 瑜伽師地論卷20의 字吐釋讀口訣 강독을 시작하여 2001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完讀을 하였다. 2002년 2월부터는 새로 발견된 角筆点吐釋讀口訣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瑜伽師地論卷8의 点吐釋讀口訣의 講讀을 시작하여 2005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마치었다. 2002년 2월부터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대한 紹介를 하고 4월부터 講讀을 시작하여 角筆点吐口訣의 강독과 병행하여 2005년 9월까지 27회를 시행하였다. 2005년 10월부터는 三國時代의 初期吏讀文들을 주로 한 吏讀資料를 읽기로 하여 廣開土大王碑, 武寧王陵 出土銘文들, 七支刀銘, 中原高句麗碑, 蔚州川前里書石, 迎日冷水里新羅碑, 第二新羅帳籍, 蔚珍鳳坪新羅碑, 平壤高句麗城壁石刻, 關門城石刻,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 丹陽新羅赤城碑등을 2007년 6월까지 읽었다. 이들은 漢文이 수용되면서 韓國語를 표기하기 위하여 어떻게 變容되어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會員들 간에 理解의 廣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日本의 變體漢文과 比較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006년 3월부터는 三國時代의 吏讀資料와 아울러 鄕歌에 대한 解讀을 시작하여 2007년 6월까지 願往生歌, 恒順衆生歌, 慕竹旨郎歌, 安民歌 등에 대하여 再解釋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鄕歌解讀은 過去의 研究業績을 受容하면서 새로 발굴된 借字表記 資料들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새로운 해독을 시도하는 것이니 종래 15세기국어를 바탕으로 한 것보다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解讀하는 것이 된다.

口訣學會 會員은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280名이 넘고 그 중 外國人 會員이 20여名(日本 15名, 中國 4名, 美洲 1名)이다. 특히 角筆点吐釋讀口訣이 발견된 이듬해인 2001년에는 41명의 많은 회원이 대거 入會하여 口訣研究에 대한 熱氣가 높아감을 보여 주었다.

4. 口訣學會의 展望

口訣硏究會가 23명의 회원이 첫 모임을 가진 이래 현재 20년이 經過하였다. 이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매우 잰걸음으로 달려온 느낌을 갖게 된다. 그 동안 不毛地와 같았던 借字表記資料의 硏究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그 틀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많은 자료들이 새로 발굴되어 소개되었고 그에 대한 國語學的인 記述이 이룩되었다. 과거 國語史의 연구는 訓民正音 創制 이후, 즉 1446년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해 오던 觀念은 이제 훨씬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4]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國語史 硏究는 訓民正音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口訣學會 會員들의 硏究成果를 알리기가 부족한 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점을 勘案하면서 口訣學會가 해야 할 일을 나름대로 짚어보기로 한다. 釋讀口訣을 비롯한 借字表記 資料의 發掘을 위한 努力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課題이다. 필자는 우리 先人들의 文字生活의 수준을 생각할 때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는 九牛一毛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이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새로운 자료가 나옴에 따라 意表를 찌르는 國語史의 새로운 면이 밝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최근 새로 공개된 佛國寺의 無垢淨光塔(釋迦塔)의 重修記와 形止記는 11세기의 文字生活의 새로운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이 吏讀文의 表記에 口訣字를 다량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의 文字史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日本의 가타카나의 실용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國內外에서 계속 발굴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을 국어사의 자료로 보고 올바른 해독을 하는 것은 우리가

4) 그러나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國語史 硏究는 訓民正音 創制 이후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어사의 체계적인 기술이 고려시대를 넘어 신라시대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15세기 이후의 국어사는 世界 言語史의 관점에서 보면 짧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國語史 硏究를 15세기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半萬年 文化民族이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15세기 이후의 順讀口訣 資料도 調査되고 硏究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각 도서관, 특히 大學圖書館에는 많은 漢籍이 쌓여 있고 그 속에 담긴 구결들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들을 조사하여 그 정당한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角筆資料의 발굴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角筆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사용되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관심 밖에 있었던 자료이다. 이 자료의 발굴은 의외의 사실을 밝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자료를 통한 연구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머지않은 장래에 큰 연구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口訣과 그 言語가 時代的으로 變遷해 간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一助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5세기 이후의 漢文資料에서 四聲点이 찍힌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高麗時代의 四聲의 표시도 斷片的이지만 발견되고 있다.[5] 그러나 고려시대의 것은 그 양이 빈약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 한국의 聲調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先人들은 漢文을 解得하기 위하여 많은 부호들을 사용해 왔다. 不審紙의 사용도 그러한 것이지만 주석을 위한 부호나 이른바 節博士의 부호 등, 아직 구명되지 않은 많은 부호들을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한 연구는 東洋三國의 讀書文化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도 밝혀두어야 할 과제이다.

---

5) 앞에 든 小林芳規(2004)에 이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借字表記 資料를 통한 국어사의 기술은 그 正確한 解讀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한다. 釋讀口訣의 解讀은 이미 漢文의 內容이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를 解釋하는 高僧과 敎學者의 마음은 逐字的인 해석을 넘어 信仰의 境地에 沒入한 듯한 인상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그 敍法의 기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15세기 文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5세기 국어의 文法을 古代國語인 釋讀口訣의 文法에 덮어씌우려는 태도는 止揚되어야 한다. 현재 15세기 국어의 문법은 현대국어의 학교문법을 근간으로 한 記述이기 때문에 이 문법을 釋讀口訣의 文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釋讀口訣의 문법을 자료가 보여 주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것이 15세기 국어로 再構造化되는 과정을 밝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알타이語의 文法, 또는 日本의 古典文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角筆点吐釋讀口訣에 대한 解讀과 硏究는 3卷의 單行本으로 간행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해독은 字吐釋讀口訣이 보여 주는 言語事實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세기의 点吐釋讀口訣은 현재 알려진 字吐釋讀口訣보다 연대가 앞서는 것이니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 기대되는데 이를 밝혀줄 만한 성과를 아직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연구의 奮發이 요구된다.

釋讀口訣에 대한 語學的인 記述과 解讀은 단순히 國語學的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韓國學의 여러 영역에 應用될 수 있다. 言語學이 文獻學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逆으로 짚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어학에서 文字論은 訓民正音의 創制論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借字表記法의 發達과 맥락을 지어서 볼 때 너무도 단순하고 시간

적으로도 짧은 것이다. 借字表記는 이미 三國時代에 발달하여 新羅時代와 高麗時代를 거쳐 近代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자생활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문자기록인 차자표기법의 발달과 訓民正音 創制 이후의 文字史를 合理的으로 기술하여야 우리의 文字史가 바르게 연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口訣學會의 討論은 매우 辛辣하고 私情이 없이 진행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차자표기는 종래 체계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恣意的으로 解釋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웠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硏究水準에 올라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새로 參與하고자 하다가 비판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미안한 뜻을 표하여 둔다.

學問에 있어서 엄격한 자세와 독창성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구결을 연구하는 가운데 名利를 탐하는 듯한 인상이 비쳐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로 인하여 자칫하면 우리의 연구가 誠實性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警戒해야 한다. 眞理를 探究하고자 하는 순수한 熱意로 가득 찬 學會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學會의 代表 또는 會長으로 학회를 이끌어 준 沈在箕, 南星祐, 高永根, 高正義, 鄭光, 임용기 선생님들과 여러 任員들에게도 학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양지원빌딩 5층〕
E-mail: namph1935@empal.com
접수일자: 2008. 05. 09.
게재결정: 2008. 07. 17.

口訣学会20年の回顧と展望

南豊鉉

口訣学会は口訣,吏読,郷札の効果的研究を目的として1988年2月に口訣研究会という名前で発足した。最初から年2回の共同研究会を行うことと定め、この共同研究会は現在までも続けられてきたのである。新しい資料の発掘に持続的に努め、字吐釈読口訣資料,順読口訣資料,三国時代から15・16世紀までの多数の吏読資料を発掘してきた。1992年からはこれらの資料の購読会を行い、口訣と吏読資料を読んできており、最近にはその対象を郷歌の解読へまで広げている。

1996年に学会の名称を'口訣学会'に変え、学会誌『口訣研究』を創刊した。同年9月には'アジア諸民族の文字'を主題とする国際学術会議を開催、韓国の文字文化の国際化への道を開いた。以後、2007年までに同類の学術会議を韓国と日本で10回開催した。その他に会員個人の国際会議での発表、韓日共同プロジェクトの遂行、アメリカのアジア学会での口訣と訓点の紹介などが行われた。

2000年夏にはソウルで角筆点吐釈読読口訣が発見され、口訣学会の新たな跳躍の契機となった。これらの資料の発掘とともに釈読口訣研究の国際化が促進され、角筆と点吐という韓国古代文字文化の面々が新たに明らかになった。点吐釈読口訣に対する研究や解読の結果が単行本として刊行され、若い研究者らの登場でこの方面の研究が活発となった。

これらの活動がこれからも持続的に行われることによって韓国語史、特に韓国

の古代国語史の体系的記述がなされ、その時代別の変遷相が明らかになることが予想しうる。これによって韓国の古代文字文化の様相が解明され、その文字文化の世界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キーワード: 口訣研究会, 資料発掘, 資料講読, 韓国語史の体系的記述, 口訣研究の国際化